

화제의 책

# 남원 문화품격 높인 신관사또부임행차

### 상반기 상설공연 호응 속 마감... 재도약 준비

남원시민의 변함없는 열정으로 만들어진 신관사또부임행차 상설공연이 상반기 상설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은 춘향전의 뻘한 스토리를 탈피해 가장 역동적인 대목을 현대적이고 해학적으로 각색한 퓨전공연물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국 유일 순수 시민참여형 공연물인 신관사또부임행차는 매년 봄, 가을 주말(토일) 오후 2시부터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20여 분간 거리퍼레이드를 한 후 광한루원에서 마당극 '춘향전'으로 이어진다. 취타대 연주, 깃발 퍼포먼스, 육방의 코믹댄스, 기생의 부채춤과 소고춤, 기생춤, 춘향춤, 주리체험, 특산품 증정, 출연진과의 포토존 등 특색있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흥이 절로 난다. 광한루원에서의 공연이 끝나면 다시 퍼레이드를 한 후 사랑의 광장으로 돌아와 3시간의 열정적인 공연이 마무리

된다.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은 지난 2007년에 거리퍼레이드 형태로 개발 운영되었다. 2008년부터 공연의 단조로움과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해 퓨전마당극을 도입하여 현재의 형식으로 재탄생 하였다. 신관사또와 이방의 익살스러운 연기와 취타대, 무용부, 기수단, 군관, 가마꾼 등 각 팀별 퍼포먼스를 개발 도입하였고, 관람객 주리체험과 의복체험, 옷놀이 등 출연진과 관람객의 어울림으로 마당극이 진행되는 형태이다. 올해는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공연의 최대 장점은 짜임새 있는 기획력과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전문배우가 아닌 순수시민 80명이 직접극을 만들고, 연습하면서 운영한다. 매년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 한 후 2개월간의 역량교육을 이수하고 2차 오디션을 통해 백여명 출연진이 구성되는데, 10대부터 60대가



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시민이 참여해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하다.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은 창단 이래 300여회의 공연을 펼쳤다. 매년 상설공연 외에도 전국의 주요 관광박람회, 대도시 홍보활동(대구, 인천, 서울, 경기도, 부산, 여수, 순천 외), 타지역 초청공연(거제시민의날, 광주충장축제, 진안마이문화제,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순창 장류축제, 코리아 크리스마스페어 외)등 남원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특목히 해왔다. 이는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상설공연 프로그램 외에도 퓨전마당극Ⅱ '양반과 상놈(가제)', 타지역 초청공연(거제시민의날, 광주충장축제, 진안마이문화제,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순창 장류축제, 코

리아 크리스마스페어 외)등 남원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특목히 해왔다. 이는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상설공연 프로그램 외에도 퓨전마당극Ⅱ '양반과 상놈(가제)', 타지역 초청공연(거제시민의날, 광주충장축제, 진안마이문화제,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순창 장류축제, 코

## 김승환 교육감 에세이집 2권 출간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독서는 삶의 원동력이다.

교육행정가이자 헌법학자인 그가 면담·결재·연설·회의·행사 등의 빠듯한 공식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습관이 생활 한 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의 장르를 불분하고 틈틈이 읽어 내려간 독서는 강연이나 면담을 할 때 요긴한 소재거리가 되었고 그로 인한 생활·지식의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안겼다.

저자는 그런 즐거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회

연 결 말 에 독서일기로 남겼고, 이를 애독해 온 시민 안도현이 책 출간을 제의해와 이에 응했다.

이렇게 출간된 독서에세이집<교육감은 독서중>에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페이스 북에 올린

알토란 같은 84편의 글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아이들과 교육계의 민감한 문제를 다룬 책을 다수 소개한다. 점수와 성적을 중요시하는 한국교육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목표로 하는 독일교육을 비교한 '펼쳐도 행복한 교실'을 비롯해 창조적인 삶을 사는데 시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시 읽는 CEO' 등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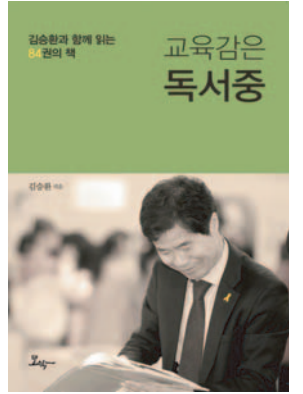
저자는 자신의 글이 '책 권하는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기가 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인간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에세이집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도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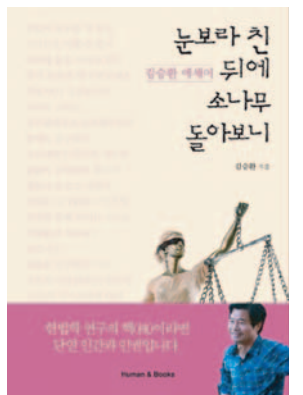
한밤의 정신, 정치의 도리, 정의와 인권, 민주와 자치, 교육과 미래로 구성된 책은 20여 년 전의 칼럼들을 그르도 모아 만들었다. 작가는 책의 출판에 앞두고 시의 성을 고민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글을 치열하게 써내려가던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 출판으로의 결심을 이끌었다며, 이 원고들은 세상이 좋아졌다면 자취를 감출게 글들이라고 말한다. /정해은 기자



교육감은 독서 중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 조선 출판인쇄문화의 판도라, 태인 방각본을 만난다

### 정읍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9월 6일~11월 5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이 조선시대 방각본(坊刻本) 출판으로 명성을 날리고 민간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한 태인의 출판인쇄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의 편저자인 백운화상과 서원판본, 사찰판본 등 태인 지역에서 간행된 옛 책을 선보인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제9회 기획특별전으로 '조선 출판인쇄문화의 판도라, 태인 방각본'을 마련하고 있다. 전시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방각본이란 민간인이 판매 목적으로 목

판으로 간행한 책을 말한다. 16세기 중반에 태동한 방각본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까지 태인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방각본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관판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책을 통해 서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있는 신분층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태인지역에서는 태인판본 14종 30여 책이 간행되어 서울 경판본, 전주 완판본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방각본 출판문화를 이루었다. 태인 방각본의 특징은 공자가, 공자통기 등 공자와 관련된 서적이 많고, 풍자습 어린이 교육용 도서, 농

가집성, 구황촬요 등 농사기술과 관련된 실용성 있는 책자를 출판했다. 방각본은 인구가 조밀한 서울, 전주, 대구 등 거점 도시에서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인 방각본의 일부는 19세기 이후에도 일제강점기까지 태인판을 이용하여 전주, 서울, 대구 등지에서 재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태인 방각본의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생적인 영리출판이라는 점에서 조선 출판인쇄문화의 변천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겠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태인이라는 비교적 작은 고을에서 민간 상업출판문화가 융성하게 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배경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 완주군 공동창조공간 '누에' 다음 달 '견' 프로그램 진행

공동창조공간 '누에'는 자유로운 문화예술의 실험장으로서, 예술가·지역민·여러 분야의 문화생산자가 함께 열린 창작공간을 만들어 내어가지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누에는 완주군에 위치했던 폐산업시설인 잠업시험지(구 호남잠사)가 거점지로 공예에 기반한 개방형 작업실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으로의 활용을 지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의 일환인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잠업시험지의 건물 6동을 금속, 섬유, 목공, 도자 등의 공예워크숍으로 리모델링하는 1차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과거 견사가공장과 차고지였던 2개의 대상을 추가해 공간 구축사업을 이어간다.

누에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완주군의 소규모 공동체 그룹이 참여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아티스트와 함께 기획하고 만든 문자가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보'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의 공간 접거 프로그램 '견', 참여주체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공간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플랫폼'로 구성된다.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예술점거프로젝트 '견'은 미술과 음악, 영상, 퍼포먼스, 사진 등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가 누에홀(구-견사가공장)을 점거하고 각각의 예술적 작업 공간을 구현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27일)

<p><b>▷ 쥐띠</b> 48년생: 하는 일에 도와주려는 사람이 생기는 운. 60년생: 직계 율직이 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2년생: 주의 깊게 살피고 행동하라.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때다.</p>	<p><b>▷ 소띠</b> 49년생: 처음에는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른다. 61년생: 자기의 주장을 관철 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이 비춰지니 주의하라. 73년생: 손윗사람과 함께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85년생: 이성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하는 운이다.</p>	<p><b>▷ 호랑이띠</b> 50년생: 동기간과의 다툼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언쟁은 피하고 상황에 따른 센스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86년생: 내부적인 일은 마음을 비워라.</p>	<p><b>▷ 토끼띠</b> 51년생: 적대적이었던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6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운.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 87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는 불리하다.</p>
<p><b>▷ 용띠</b> 52년생: 나를 위한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면 공이 돌아온다. 64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76년생: 투박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를 얻는다.</p>	<p><b>▷ 뱀띠</b> 53년생: 결과 속이 다르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가야.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져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가볍게 던진 말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하라.</p>	<p><b>▷ 말띠</b>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만을 줄 수 있다. 78년생: 사고수와 질병수가 따르니 문전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고 미루었다가 꼭 필요한 것이니 다시 생각해라.</p>	<p><b>▷ 양띠</b>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언행에 주의해야 하겠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 91년생: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운.</p>
<p><b>▷ 원숭이띠</b>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80년생: 먼저 배울면 배운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p>	<p><b>▷ 닭띠</b>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고 안에서 직계 율직이면 좋다. 81년생: 미혼자에게는 이성과 만남이나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운.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민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p>	<p><b>▷ 개띠</b> 46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58년생: 틀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0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2년생: 온전은 기급적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 돼지띠</b>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며 외부의 호응도 얻게 된다. 5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83년생: 헛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p>